

경기도·GH, 자족시설용지 공급 첨단산업 선도기업 유치 ‘박차’

제3판교 테크노밸리 청사진으로 ‘직·주·락·학’ ‘스타트업 천국’ 제시 9월 중 공모절차... 연말 최종선정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9월 중 공모를 추진한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도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000㎡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로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청사진’을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스타트업 천

국’으로 제시하면서 판교를 산업과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 만들어 세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모 대상 용지는 자족시설용지 1-4번(6천168㎡), 3번(5천696㎡)이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공모 대상 기업은 시스템반도체, ICT, 로봇, 인공지능, 게임 등 첨단산업 분야에 유능한 기업이다. 도는 이들 기업이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 예정인 첨단학과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첨단 산학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테스트베드, 공유경제 기반의 장비, 회의실과 스타트업 재정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통근고통 없는 공공기숙사 1천 호를 공급하는 등 진정한

직(職)·주(住)·락(樂)+학(學)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GH공사는 8월 중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담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2025년 1/4분기에 감정가격으로 수익계약 공급하고, 2025년 말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첨단산업 선도기업(앵커기업) 용지공급 사전 안내를 필두로 대학교, 연구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육성·지원책 등을 도입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경기-테크노밸리에도 제3판교와 같은 개발 컨셉을 응용해 경기도를 첨단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metroseoul.co.kr



오승균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이사장(맨 오른쪽)이 지난 10일·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직업교육박람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유학생 48명 입학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주목

인구 부족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고교 유학생 유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관내 직업계고등학교에 올해만 총 4개국 48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며 우수 사례로 꼽힌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0일·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 직업교육박람회’에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관이 마련돼 해외유학생 유치 사업에 대한 정

보를 나눴다.

직업교육박람회는 변화하는 미래 산업사회의 직업교육 방향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학생 대상 직업 진로 정보 제공 등 직업계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기업체, 해외 유학생 등 6000여 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대회 운영위원장(박기환 의성유니텍고 교장)초청으로 오승균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이사장과 김수태 회장도 참석해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프로 그램 정보를 나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 11종 행정업무 이관

학교행정지원센터 시범 운영 문제점 보완 후 서울시 전역 확대 채용 업무, 시설관리 등 지원 추진

그간 서울 관내 교사들이 해왔던 스쿨버스 계약, 소방합동훈련, 대규모 공사 행정업무 등 교원갈등을 유발하던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남부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행정지원센터를 팀 단위로 설치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교사의 행정 업무를 덜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향후 서울시 전역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처리하기에 부담이 큰 교무행정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교직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약 11종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기간제교원, 협력강사 등 모든 직종의 채용 업무를 계획 수립부터 면접, 호봉확정 단계까지 모두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대면연수 강사 구인의 편의성 향상을 돕기 위해 강사 인력풀 및 표준 연수자료를 제공하며, 향

후 나이스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이수 현황도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입학준비금 업무 지원 ▲교원 등 호봉 승급·초임호봉 확정 등 지원 ▲학교와 소방서의 합동훈련 일정 조율 지원 ▲대규모 공사 업무 지원 ▲학교 공통수행 업무 중 일괄 위탁할 경우 업무경감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보건환경위생(공기질검사, 저수조 청소 등) ▲시설관리(소방, 전기, 가스 등) 업무 등의 위탁 지원도 추진한다.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내 교원, 행정실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 대상 업무경감 체감도 모니터링과 이관업무 발굴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행정효율화학교’를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 학교 내에서 교무행정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고 지방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학교에 일반직공무원을 추가로 1명씩 배정해 늘봄·방과후학교 업무 및 학교인력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해 교원 업무 경감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 집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을 추진해 왔다. 2019년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사안처리, 위기학생 지원 등 교육활동·생활교육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가 부담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3월에는 학교내 증가하는 교권 침해 사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내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총괄 정책을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기존 학교폭력 업무와 더불어 ‘교육활동보호’를 추가해 학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학교행정통합지원모델 TF를 운영하고, 본청 각 부서, 지원청, 학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따른 조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행정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보호·생활교육지원,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행정 통합지원의 3체계를 구축해 학교지원 기능에 보다 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서울시, 집값 담합 주도 단속방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방장 입건 아파트 소유자에 가격 왜곡 유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A아파트 소유자 단속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속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또 B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 대상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

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라며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광주 청년구직자에 일경험 지원해드려요”

광주시 ‘일경험 드림 만남의 날’ 구직자 979명, 사업장 289개 참여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에서 일경험을 희망하는 광주청년 구직자 979명이 광주시가 마련한 ‘일경험 드림 만남의 날’에 몰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 만남의 날’ 행사에 청년 구직자 979명과 289개 드림터(사업장)가 참여해 마무리했다.

‘드림 만남의 날’은 청년의 구직활동 의지를 북돋고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와 구직 청년의 일경험을 연결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공공서비스형 80개 기관과 한국알프스㈜, ㈜해양에너지, ㈜무등기업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형 사업장 209개사 등 총 289개 드림터가 참여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300개 부스에서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해 상담·면접 등이 진행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 중 470명을 ‘제16기 드림청년’으로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드림터(사업장)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일경험을 체험한다. 선발 결과는 26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할 예정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전남도, 올해 상반기 수출액 241억달러 돌파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률 달성 화학공업 제품, 농수산물 등 성과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241억 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의 성장률을 달성, 전남 주력산업과 농수산식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이들 품목은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화학공업 제품과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타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무려 782.9% 증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라이베리아 등이다. 이 중 라이베리아로의 수출이 601.6% 증가해 큰 성장을 보였고, 미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 역시 각각 31.4%와 29.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